

# 광주·전남 장애인 선수 감동을 쏘다

광주, 금 45·은 42·동 31개 획득 ... 종합 순위 5위  
전남, 금 19·은 47·동 52개 ... 총 118개 메달 수확



14년 만에 전남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와 전남 선수단이 나란히 선전하고 있다.

광주시선수단은 한 자릿수 확보를 위해 모든 기량을 펼치고 있고, 종합 순위 5위를 목표로 했던 전남은 4위까지 넘보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5일 현재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각각 종합순위 5위와 4위에 나란히 이름을 두고 있다. 특히 개최지 전남은 지난해 종합순위 9위에 올랐지만, 현재까지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광주도 6위에서 한 단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회가 반환점을 도는 현재까지 선수들의 분전이 빛이 나고 있다. 광주선수단은 메달 수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 45개, 은 42개, 동 31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5위를 달리고 있다.

육상 장신영(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은 남자 포환던지기 F20(선수부)에서 11m32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 수립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또 김천천·김선정·김지혜 삼 남매(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가 모두 금메달 2개씩을 획득하는 저력을 보였다. 김천천은 남자 원반, 창던지기 F13에서 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세광학교(고) 1학년 재학 중인 김선정(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은 전국장애인체전에 생애 첫 출전해 여자 100m, 400m T13(시각장애)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출전 전 종목(원반, 포환, 창)의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김지혜(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는 이번 대회에서도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여자 창던지기 F13에서 21m27을 기록해 전년도 기록 17m52을 4m 이상 앞당겨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여자 원반던지기 F13에서도 21m27로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김지혜는 7일 포환던지기에서도 한국신기록 달

성기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격에서는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와 복사 R5 단체전에서 임주현, 박승우, 박동안, 김근수가 각각 1890.8점, 1907.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광주 선수단은 복사 R5(1907.8점) 대회신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다. 기준기록은 2021년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이 세운 1904.3점이다. 박동안은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와 복사 R5 개인전에서도 1위를 차지해 4관왕을 달성하며, 광주 사격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탁구에서는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 3관왕의 주역인 서수연이 여자 단식 CLASS2에서 또한 번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김성욱, 박진철, 김영건이 단식에서 우승했다.

전남선수단 금메달 19개, 은메달 47개, 동메달 52개로 총 118개의 메달을 손에 넣었다.

남자 사이클 박술기(한전KDN)가 트랙 개인추발 3kmC2, 트랙 독주 1km C1.C2에서 금 2개를 획득해 2관왕에 올랐다.

특히 트랙독주 1km에서는 1분21초913으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수영의 최길라도 지난 3일 자유형 200m S12에서 3분36초57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외에도 육상의 강수빈(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미옥(한전KPS), 김정하, 이장섭, 신윤진(전남장애인육상연맹), 이민재(전남장애인육상연맹), 노병일(한전KDN)을 비롯해 카누의 김광현, 손영숙(전남장애인카누협회), 탁구 김은희(전남장애인탁구협회), 론볼 노병일(한전KDN)이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광주도 메달 수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는 금 41개, 은 36개, 동 26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5위를 달리고 있다. 육상에서 광주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육상 장신영(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은 남자 포환던지기 F20(선수부)에서 11m32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 수립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또 김천천·김선정·김지혜3남매(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가 모두 금메달 2개씩을 획득하는 저력을 보였다. 김천천은 남자 원반, 창던지기 F13에서 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세광학교(고) 1학년 재학 중인 김선정(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은 전국장애인체전에 생애 첫 출전해 여자 100m, 400m T13(시각장애)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출전 전 종목(원

반, 포환, 창)의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김지혜(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는 이번 대회에서도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여자 창던지기 F13에서 21m27을 기록해 전년도 기록 17m52을 4m 이상 앞당겨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여자 원반던지기 F13에서도 21m27로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김지혜는 7일 포환던지기에서도 한국신기록 달성의 기대를 걸었다.

이 밖에 사격에서는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와 복사 R5 단체전에서 임주현, 박승우, 박동안, 김근수가 각각 1890.8점, 1907.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광주 선수단은 복사 R5(1907.8점) 대회신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다. 기준기록은 2021년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단이 세운 1904.3점이다. 박동안은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와 복사 R5 개인전에서도 1위를 차지해 4관왕을 달성하며, 광주 사격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탁구에서는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게임 3관왕의 주역인 서수연(광주시청)이 여자 단식 CLASS2에서 또한 번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김성욱, 박진철, 김영건(이상 광주시청)이 단식에서 우승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물오른 이강인, 프랑스 리그1 데뷔골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기록  
PSG, 5연승 리그 1위 등극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데뷔골과 함께 공식전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물오른 기량을 뽐냈다.

이강인은 4일(한국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3-2024 리그1 11라운드 몽펠리에와 홈 경기 전반 10분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리그 1호 골을 쏘아 올렸다.

오른 측면에서 아슈라프 하킴이 낮게 깔아 찬 크로스가 넘어오자, 칼리안 음바페가 이를 뒤로 흘려주면서 이강인에게 기회가 왔다.

페넬티아크 앞에서 수비 견제 없이 공을 잡은 이강인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찰라 1-0을 만들었다.

이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고 정규리그에서 처음으로 터뜨린 골이다. 이로써 이강인은 공식전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작성하며 홈팬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달 29일 브레스트와 10라운드 원정 경기 전반 28분 음바페에게 환상적인 왼발 아웃프린트 침투 패스로 1호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강인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득점까지 터뜨리며 상승세를 입증했다.

지난달 26일 AC 밀란(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3-0을 만드는 PSG 데뷔골을 넣은 데 이어 3경기 연속으로 날카로운 공격력을 뽐낸 것이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한 이강인은 47회 패스를 모두 성공하며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득점 기회로 연결되는 키 패스도 한 차례 만들었고, 크로스로 팀 내 최다인 10회를 기록하는 등 필필 날랐다.

후반 16분 비티냐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난 이강인에게 이 대체는 8.19의 높은 평점을 매겼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덱도 그라운드 공 경합을 6차례 이겨내는 등 수비에서도 기여한 이강인에게 8.3을 평점으로 줬다.

PSG는 후반 13분 2006년생 신성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우스만 댐벨레와 2대1 패스 후 페널티지역에서 시원한 오른발 슈팅을 차 2-0을 만들었다.

이어 이강인과 교체한 비티냐도 후반 22분 페넬티아크 앞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승부에 쐬기를 보였다.

이강인, 자이르에메리 등 미드필더진이 맹활약한 PSG는 70%가 넘는 공 점유율을 바탕으로 슈팅 21개, 유효 슈팅 10개를 퍼부으며 3-0 완승을 거뒀다.

PSG는 공식전 5경기 연속으로 3득점 경기를 펼치는 화력으로 5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제대로 뽐냈다.

승점 3을 쟁긴 PSG(7승 3무 1패·승점 24)는 한 경기를 덜 치른 OGC니스(6승 4무·승점 22)를 제치고 리그1 선두에 등극했다.

오는 6일 열리는 니스와 스타드 렌의 경기 결과에 따라 11라운드에서 선두를 탈환할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이강인(오른쪽)이 4일(이하 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몽펠리에와 2023-2024시즌 프랑스 리그1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리그 1호골을 쏘아 올린 후 음바페와 일사언약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사이클 김정빈, 장애인체전 2관왕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3관왕인 시각장애인 사이클 선수 김정빈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정빈은 5일 영암군 영암국제자동차경기장에서 열린 사이클 남자 개인도로독주 22.4km 텐덤B(시각장애) 경기에서 비장애인 파일럿 윤중현과 29분19초01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지난 3일 트랙 개인추발 4km 텐덤B 경기에서 한국기록(4분35초861)으로 우승했던 김정빈은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4일 트랙 스프린트 200m 텐덤 B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메달 3개를 획득했다.

김정빈은 "4km 경기에서 한국 기록을 달성한 것이 가장 기쁘다"라며 "내년 5월에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뤄보고 싶다"고 밝혔다.

태권도 간판 정정훈은 전남 장흥체육관에서 열린 겨루기 남자 80kg급 K44 결승에서 이권훈을 29-16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보치아 여자 개인전 BC3 경기에 선 강선희가 신민정을 5-1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2 카시아스두술 하계데플림픽 은메달리스트 공혁준은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m DBM(청각장애) 결승에서 11초06으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 광주 여자 배구 AI페퍼스 최하위로 1라운드 마무리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4연패에 빠졌다. 남자 프로배구에서는 삼성화재가 5연승에 성공하면서 1라운드를 1위로 마쳤다.

페퍼스는 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정관장에 0-3(25-27 17-25 16-25)으로 완패했다. 페퍼스는 4연패 수렁에 빠졌고, 정관장은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정관장의 히잡 쓴 '인도네시아 거포' 메가와 지아 '쌍포'가 페퍼스 진영에 각각 25점, 18점씩을 내리꽂으며 팀 득점의 66%를 책임졌다. 특히 메가는 두 팀 선수 중 가장 높은 57.5%의 공격 성공률을 장식하면서 페퍼스를 울렸다.

두스 점점 끝에 서브 범실과 지아의 득점으로 1세트를 내준 페퍼스는 이후 2-3세트에서는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승리를 내졌다.

정관장이 48.6%의 팀 공격 성공률을 보였지만, 페퍼스는 33.33%의 성공률에 그쳤다.

리시브 효율에서는 페퍼스가 31.34%를 기록하면서 정관장(26%)에 앞섰지만, 주포인 아스민과 에이스 박정아가 각각 10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10월 19일 한국도로공사와의 홈 개막전에서 폴세트 점진 끝에 시즌 첫 승을 거뒀던 페퍼스는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1승 5패(승점 3)의 전적으로 1라운드를 최하위인 7위로 마무리했다.

페퍼스는 10일 오후 7시 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를 상대로 2라운드 일정을 시작한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삼성화재의 연승이 이어졌다. 삼성화재는 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홈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세트 점수 3-0(28-26 25-21 25-22)으로 꺾었다. 요스바니가 25점을 수확하면서 팀 5연승의 주역이 됐다.

이날 승리로 삼성화재가 우리카드와 나란히 5승 1패, 승점 14를 기록했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앞서 1위에 자리했다. 특히 최근 4경기 연속 세트 스코어 3-0의 '삿웃음 승리'를 완성하는 등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